

공동체 소식

대림시기

- 대림(待臨)이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도착' '도래'를 나타내는 라틴말 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결국 전에 계셨고(첫번째 오심) 지금도 계시고(우리 가운데 오심) 앞으로 오실(영광스러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합당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시기에는 또한 **대림환을 만들고 대림초를 켜니다**. 대림환은 늘 푸른 상록수 잎으로 엮어 만드는데 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대림초는 대림시기 4주 동안 매주 하나씩 늘려가며 켜 수 있도록 4개로 만듭니다. 반갑기 그지없는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시기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성탄전까지 미사전 판공성사를 드립니다. 판공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 **우리의 정성으로 아기예수님 따뜻한 구유에 모실 수 있도록합시다.**
- **대영광송 하지 않습니다.**

첫형성체 축하합니다.

- 첫형성체를 하는 4명의 학생들 축하합니다.
- 강윤후(그레고리오), 강미정(클라우디아), 김하울(루카), 차한나(가브리엘라)

복사단 입단식 안내

- 12월 22일(일) 교중미사 중 5명의 학생들이 복사단 입단을 합니다.
- 강윤후(그레고리오), 강미정(클라우디아), 김하울(루카), 차한나(가브리엘라), 김가온(토마스)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미사 봉헌때나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교무금 안내

-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 모든 가정에서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감사헌금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시 십일조의 정신을 살려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꽃봉헌 접수

- 15일(일)까지 전례부로 접수해 주십시오.

평협회 안내

- 15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성탄예술제 신청안내

- 24일(화)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전 **성탄 예술제**에 참가할 개인/구역/단체는 평협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 원서: <http://uus.pauline.or.kr>
- 문의: 2020.1.31마감, 02-944-0819~24, 010-5584-8945

12월 2차헌금/캠페인 안내

- **12월 8일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성직자/수도자 은퇴 기금 모금**
- 12월 25일 Catholic Charities 가톨릭 자선단체를 위한 모금
- **One Faith Campaign 가정별로 약정서 작성하시어 대교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의(chasuble)

- 본당 제의 구입을 위한 donation 받습니다. **접수 : 전례부** (흰색,녹색,홍색,자색,분홍색)

성탄시기 미사 안내

- 24일(화) 저녁 8시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구유축복/구유경배/구유예물)
- 25일(수) 오전 11시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구유경배/구유예물)
- 29일(일) 오전 11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축복)
- 1월1일(수)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월5일(일) 오전 11시 주님 공현 대축일
* 구유예물은 교회 전통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교구 Call To Share에 보내겠습니다.
* 1월 심심미사 없습니다.

제20차 성령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 피정

- 일시: 2019년 12월 26일(목)~28일(토)
- 장소: Holy Name Retreat Center, 430 Bunker Hill Rd. Houston, TX 77024
- 초대강사: Fr.이경 바오로, Fr.신용문 야고보, Fr.이종만 세례자요한, Fr.김인 요셉
- 지도신부: Fr.정건석 프란치스코
- 문의: 홍권의 레오(713-834-5430) 또는 박진연 스텔라(956-566-1796), 참가신청서 작성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정 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영어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역/반모임 안내 (성당게시판 참조)

- 1구역 **15일(일) 오후 1시** 박태주 로마노 가정
- 2구역 **13일(금) 오후 7시** 김정원 베드로 가정
- 3구역 **20일(금) 오후 7시** 강승석 도미니코 가정
- 4구역 1반 **21일(토) 오후 7시** 차상욱 펠릭스 가정
- 4구역 2반 **20일(금) 오후 7시** 안병환 발렌티노 가정
* 성당게시판 참조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93	41	157	91
차 주	91	212	175	95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요셉)	강윤후 (그레고리오) 강미정 (클라우디아)
차 주	최은미 (아네스)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주일미사 복사

금 주	김정빈(바오로), 김정훈(로베르토)
차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원(안젤라)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예레미야), 차상욱(펠릭스)
차 주	감영진(라파엘), 김동술(요한)

애찬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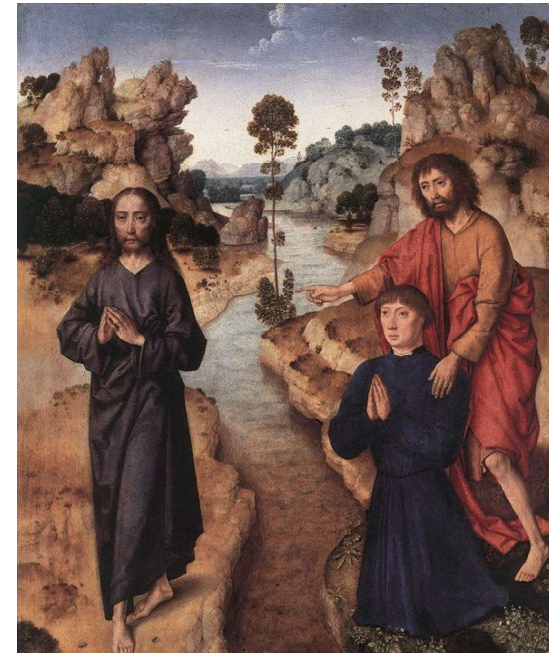
금 주	5조: 김말자, 박계숙, 박옥희, 박영숙, 김수연
차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송진희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 주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묵상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이를 기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림 제3주일 인 오늘을 '환희의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강생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복음」102항) 이 만남으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강생의 신비는 모든 인간 생명이 갖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영현 시문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 35,1-6ㄴ.10

<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화 답 송 :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겐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겐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 서 : 야고보서 5,7-10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 마태오 11,2-11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

기다림은 현실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어렵게 탈출한 후 하느님께서 알려준 땅에 정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두 나라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또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성전 역시 파괴됩니다. 나라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유배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의 시간이자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배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외국에 남아 있었고 돌아온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흩어진 백성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고, 하느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희망은 종교 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구원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흩어진 백성을 모아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할 하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현실이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요한은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 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분이었고, 그분은 이제 이 땅에서 하느님의 일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귀는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구약성경에서 예고된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종말을,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년 대림 시기를 통해 준비하고 기

역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기다림이 단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인 셈입니다.

이제 대림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현실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을 희망 안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불어 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질문



우리는 관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궁금한 마음을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관심의 표현이 아닐
까요?

당신은 무엇이 궁금한가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마태 11,3)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빠야따스'에서 - 2

제가 필리핀 빠야따스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커져 직접적인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은 가벼운 질병이 중증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 의미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생명이며 희망입니다.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은 일회성이 아닌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삼십 명의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급식할 수 있는 비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6개월 후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고 또 중단할 때 중단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계시는 한 수녀님께서 급식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원 미사를 주선해 주셨고, 또 다른 수녀님께서도 몇몇 지인들에게 부탁해 작은 후원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30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굶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급식을 돕기 시작 한 이 모임은, 현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빠야따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페루, 에티오피아 등지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무

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돕는 것은 '나눔의 기쁨'을 알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줄 때 보다 받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받을 때 얻는 기쁨이 소낙비라면 나눌 때 얻는 기쁨은 가랑비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낮에 내리는 소나기는 뜨거운 대지를 순식간에 식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잠시뿐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특히나 한꺼번에 내리는 비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가버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오랫동안 내리는 가랑비는 언제 더위를 식혀주는지도 모르게 더위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땅으로 스며들어 나무에도, 꽃에도, 풀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받을 때 얻는 기쁨이 소낙비처럼 한꺼번에 와서 잠시 머물다 잊혀지는 것이라면, 나눌 때 얻는 기쁨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어 어느새 우리의 삶에 행복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십이월, 적지만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 (중화관구)

전례 상식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 ▣ 12월 22일 주일 성당/지하식당 청소합니다.(성탄맞이)
-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지만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